

여성문학과 반지성주의 관계에 대한 역사적 고찰

이 경 하*

[초 록]

본고에서는 여성문학과 반지성주의의 관계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목표로 하였다. 본고에서는 ‘반지성주의’를 ‘반지식인’ 또는 ‘타자에 대한 적대감’의 뜻으로 썼다. 그리고 복잡하고 다양한 여성문학과 반지성주의의 관계를 드러내는 데 더 적합하다 여겨 긴 역사적 개괄을 선택하였다. 여성문학과 반지성주의 관계는 단일하지 않다. 여성문학이 반지성주의적일 수도 있고, 여성문학이나 여성주의를 다루는 태도가 반지성주의적일 수도 있다.

본론에서 살핀 바, 예전에는 여성이 지식인이 아니란 이유로 여성문학이 외면당했고, 여성문학을 대하는 태도는 당대 지식인이라 해도 반지성주의적일 수 있었다. 물론 조선 시대 여성은 지식인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으니 여성문학도 비지식인 문학이다. 그런데 조선뿐만 아니라 현대에서도 한동안 여성작가문학에 대한 일종의 편견, 타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교수

주제어: 반지성주의, 여성문학, 여성주의, 반지식인, 지식
Anti-Intellectualism, Women's Literature, Feminism, Anti-Intellectual, The
Centre of Intellect

자에 대한 적대감이 있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지분기’라는 말도 있었고, 근대 이후 문학사에서 여성작가문학은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했다. 한편에서는 초기 여성주의의 과도함이 고전여성작가에 대해 지나친 감상에 빠지게도 했다. 반대로 고전여성작가에 대해 지성만을 강조하기도 했다. 현재에는 ‘메갈리아’로 낙인찍힌 여성주의가 지나치다고, 남성을 적대시한다고 여기저기서 욕을 먹는다. 그 시선을 신경 써야 하는 일부의 ‘진보’도 마찬가지로여서 이른바 ‘급진적인’ 여성주의를 멀리했음을 살폈다.

1. 머리말

이 글의 목표는 여성문학과 반지성주의의 관계에 대한 역사적 고찰에 있다. 역사적 고찰이란 조선시대부터 현대까지를 말한다. 그래서 더 범박할 수밖에 없는데 반지성주의와의 관계를 보기 위함이니 여성문학의 몇 국면만 보기로 한다. 반지성주의 개념을 처음 사용한 호프스태터의 책에는 젠더에 대한 고려도 없었다. 또한 여성문학과 반지성주의의 관계가 반지성주의 개념만큼 복잡하고 혼란스럽다. 그래서 더욱 정리가 필요하다.

반지성주의는 현재 학계에서도 핫 이슈다. 몇 년 전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이 반지성적이란 지적 이래,¹⁾ 미국에서 시작해 일본에서도 유행한 반지성주의의 개념이 생각보다는 다양하다.²⁾ 일본의 경우, 2015년에 올해의 유행어로까지 선정된 ‘반지성주의’라는 개념을 분석

1)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이 미국의 반지성적 흐름에서 처음은 아니란 주장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안병진(2016), 「조지 윌리스의 부활—트럼프 현상의 연속성과 새로움」, 『역사비평』 117, 역사문제연구소.

2) 반지성주의의 미국식 유래와 다양한 개념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강준만(2019), 「왜 대중은 반지성주의에 매료되는가?」, 『정치정보연구』 22(1), 한국정치정보학회, pp. 28-31.

함으로써 그 이면에 있는 현대일본의 문제들을 드러내려 한 연구도 있다.³⁾

이 개념은 본래 미국 문화와 역사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한국 실정에 딱 들어맞지는 않는다. 또한 ‘~주의’를 붙일 만큼 지향이 뚜렷하지도 않다. 그러나 기득권에 맞선다는 점에서 시공을 초월해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다. 본고에서는 ‘반지성주의’(anti-intellectualism)를 ‘반지식인’ 또는 ‘타자에 대한 적대감’의 뜻으로 쓴다.⁴⁾ ‘반지식인’이란 아예 지식인으로 간주되지 않았다는 ‘비지식인’과는 다른 말이다. ‘타자에 대한 적대감’⁵⁾이란 분명 겉으로는 지식인인데 그의 말이나 행동은 반지성적일 수 있다는 말이다. 후술하겠지만 21세기 이른바 ‘과격한’ 여성주의에 대한 태도는 타자에 대한 적대감의 전형이다. 그리고 조선에서 영수합 같은 양반 여성이건 황진이 같은 기녀이건 여성작가문학은 표면적으로 지식인 문학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설령 ‘여중군자’나 ‘여사’란 칭송을 들어도 여자는 여자였다. 비록 한문학이라도 조선 상층 남성의 타자, 즉 여성에 대한 적대감이나 편견이 컸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반지식인성’과 ‘타자에 대한 적대감’은 반지성주의의 핵심적인 속성으로 지적되어 왔다.⁶⁾ 여기서 말하는 ‘타자’는 시대마다 사회마다 다를 것이다. 당대 통념상 비주류가 타자일 것이다. 남성에게는 여성

3) 남상욱(2019), 「현대일본의 ‘반지성주의’ 담론 분석」, 『일본학보』 119, 한국일본학회. 감독 등 사회 각 분야의 저자가 참여한 이런 책도 있다. 우치다 다쓰루편(2016), 김경원 역, 『반지성주의를 말하다: 우리는 왜 퇴행하고 있는가』, 고양: 이마.

4) 반지성주의 개념을 처음 사용한 “호프스태터는 주로 1950년대에 미국 사회를 휩쓸었던 매카시즘의 광풍을 고발하기 위한 역사적 분석의 목적으로 반지성주의라는 개념을 썼”다고 한다. 강준만(2019), p. 29.

5) 반지성주의에서 타자에 대한 적대감이나 공포, 분노 등이 중요한 동인이 된다는 것은 안병진(2016) 참조.

6) 안병진(2016), 강준만(2019) 참조.

일 수도 있고, 백인에게는 흑인일 수도 있고, 유교적 상층에게는 무속적 하층일 수도 있고, 토착민에게는 이주자일 수도 있다. 여기에 경제적인 요인이 섞이면 반지성주의의 각 속성이 폭발하는 것 같다. 남성이 여성에게 평시에는 온화하다가도 자기 지위에 위협적인 순간에는 적대적이 된다.

여성문학의 개념도 단일하진 않다. 흔히 여성작가문학으로 이해되거나 한국고전문학계에서는 훨씬 넓은 뜻이다.⁷⁾ 예를 들어 18세기 <향랑전> 같은 경우, 남성 지식인이 한문으로 지었지만 조선의 여성과 ‘열(烈)’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다. 또한 여성작가의 존재는 확실하지 않아도 한글소설이 여성독자를 포괄한다는 증거가 많다. 요즘에는 여성문학이라고 하면 작가의 성별이 여성임을 뜻하지만, 근대 이전에 여성문학이 곧 여성작가문학이라고만 해서는 안 된다. 이 글에서는 여성문학이 여성작가문학을 가리킬 때도 있고, 범박하게 여성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경우도 있고, 특히 여성주의문학을 뜻할 때도 있다. 여성문학 연구는 대개 여성주의에 동조하지만 실상은 아닌 경우도 있다. 각각을 문맥에 따라 여성작가문학, 여성문학, 여성주의문학으로 구분해 사용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여성문학과 반지성주의의 관계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목표로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 관계가 단일하지 않다. 이중적이고 양면적이다. 여성문학이 비지식인문학이면서 반지성적일 수도 있고, 여성문학이나 여성주의를 다루는 태도가 반지성적일 수도 있다. 주체가 다르다. 이처럼 여성문학과 반지성주의의 관계가 단일하지 않음은 여성문학과 반지성주의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길게 봐야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역사적 개관이 단지 서술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말이다. 물론 여성문학 각 분야의 연구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

7) 여성문학의 개념에 관해서는 이경하(2004), 「여성문학사 서술의 문제점과 해결 방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 10-21.

가능하다.⁸⁾

2. 고전여성문학의 반지성주의

이 장에서는 고전여성문학의 반지성주의에 대해서 다룬다. 학문 분야마다 다르긴 한데, 무가의 경우 여성문학의 반지식인성의 대표이고, 한시는 여성문학을 다루는 당대 상층 남성 태도가 반지성적이어서 문제이다. 먼저 무가를 보자. 무속이 조선에서 대표적으로 반지식인적이라는 것, 그리고 무가와 여성의 친연성은 한국고전문학계에서는 이미 상식이다. 무당이 여성이건 아니건 주된 향유층이 여성들이었고 특히 서사무가는 여성의 관심사와 문제의식을 많이 담아내었기 때문에 무가와 여성의 친연성을 말한다.

아끼바(秋葉隆)⁹⁾와 켄달(Kendall) 이하 여러 논저에서 여성적/하층의 무속문화와 남성적/상층의 유교문화의 공존을 강조해 왔다. 조선은 남성적 유교문화가 혼자 이끌어 온 듯 보이지만 실은 여성적 문화가 함께였다. 여성적 무속문화와 남성적 유교문화의 ‘이중구조’를 처음 지적한 것은 아끼바였다.¹⁰⁾ 그 뒤를 이은 켄달의 논문은 최근 한국어로 번역되기도 했다.¹¹⁾ 이것은 1979년 뉴욕의 컬럼비아대학 박사학위 논문 “Restless spirits: Shaman and housewife in Korean ritual life”의 전

8) 이경하(2014),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의 정체성과 지구화 시대의 과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9,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참조.

9) “한국무속의 사회인류학적 연구는 말할 것도 없이 아끼바(秋葉隆)에서 출발한다.”라고 했다. 최길성(1982), 「무속에 있어서 「집」과 「여성」」, 『한국무속의 종합적 고찰』(홍일식 외),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p. 93.

10) 최길성(1982), p. 94.

11) 로렐 켄달(2016), 김성례·김동규 역, 『무당, 여성, 신령들: 1970년대 한국 여성의 의례적 실천』, 서울: 일조각.

문이다. 여기서 논자는 “여성 및 여성이 모시는 신령들은 남성 중심으로 정의된 한국의 가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한다.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나는 여성의례의 관점에서 한국 사회를 다시 고찰해 보고자 한다.”¹²⁾라고 했다. 또 다른 초창기 한국인 연구자는 “시게마쓰(重松眞由美)도 굿은 의례로서도 중요하지만 한국 사회에서의 여성 세계를 이끌어가는 모델로서도 중요하다고 하였다. 두 사람 모두 굿을 여성에 밀착시키고 있다.”¹³⁾라고 했다.

이후 여성주의의 흥기와 함께 무가를 여성주의적으로 재해석하는 연구가 많아졌다. 즉 무가가 여성문학의 반지식인성을 대표하기에 이른다. <바리데기>는 그 대표적인 예다.¹⁴⁾ 바리데기는 주된 향유층인 여성들의 문제의식을 곳곳에 담아 조선 시대에 딸을 천시하던 현실의 모순을 경험적으로 알면서도 아들을 부정하지 않고 가부장적 현실을 감싸 안았다. <바리데기>는 무가로 반지식인 문학이면서 당대 현실의 모순을 그렸다는 점에서 오히려 당대 지식인보다 지성적이다.

물론 여성성과 하층성이 동일하진 않는데, 조선시대에는 공적으로 지식인으로 간주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같다. 상층 여성은 가문의 위신을 위해 최소한의 식견은 요구되었음이 여러 연구로 밝혀졌다.¹⁵⁾ 하지만 상층 남성의 타자, 즉 여성에 대한 적대감으로 한계는 뚜렷했다. 소설도 특히 한글소설은 여성 또는 하층 또는 벼슬하지 못한 상층 남성과의 친연성이 주목되었다. 무기명 작가가 많은데 여성이나 벼슬하지 못한 상층 남성의 작가설이 자주 거론되었다.¹⁶⁾ 선호한 양식은

12) 로렐 켄달(2016), pp. 65-66.

13) 최길성(1982), p. 98.

14) 자세한 것은 이경하(2019), 『바리데기』, 돌베개 참조.

15) 예를 들면, 이경하(2005), 「17세기 士族 여성의 한문생활, 그 보편과 특수」, 『국어국문학』 140, 국어국문학회 참조.

16) 정병설(2001), 「조선후기 여성소설과 남성소설의 비교 연구 —<옥원재합기연>과 <옥린몽>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07, 한국어교육

계층별로 달랐지만 말이다.¹⁷⁾ 또한 한글 필사본 규훈서(閨訓書)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다. 한자 없이 한글로만 필사된 규훈서는 여성이 필사했을 확률이 높는데, 그 중 일부는 원문의 선택과 배제에 의해 동일한 책을 필사하였더라도 지향이 다른 책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변이는 규훈서가 수용되는 과정에서 투기를 비롯한 규범에 대한 여성의 문제의식을 담아 원 텍스트의 의미가 변화하기도 하였다.¹⁸⁾

한문학에서는 조선시대에 이미 여성작가문학에 대해 ‘지분기(脂粉氣)’, 즉 화장기란 말로써 여성작가문학을 비웃는 논조가 있었다. 당대에는 당연했다 해도 상층 지식인 남성들의 반지성주의적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여성성’을 여성작가문학의 평가 기준으로 삼는 태도가 근대의 문학사 서술에 와서 처음 나타난 것은 아니다. 20세기 이전에 남성 문인들이 여성의 한시를 평가하면서 종종 거론했던 ‘지분기’는 ‘여성적 어조’ 또는 ‘여성적 문체’를 가리키는 말로서, ‘여성성’의 부정적 용법을 응축하고 있다. ‘지분기’란 ‘예쁘고 화사하고 순함’을 의미할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박하고 기운이 모자람’, 즉 여성이 지은 한시의 ‘여성적 한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¹⁹⁾ 이처럼 여성작가문학을 평가할 때 ‘여성성’을 기준으로 삼는 태도는 여성문학 연구에 있어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널리 확인되는 현상으로, 그 함의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이 역시 고전여성문학에 대한 상층 남성 지

학회(구: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p. 402.

- 17) 임형택(1988), 「17세기 규방소설의 성립과 《창선감의록》」, 『동방학지』 57,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참조. 그간의 여러 연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상층은 녹책류, 하층은 전책류 한글소설을 선호했다.
- 18) 이지영(2012), 「조선시대 규훈서(閨訓書)와 여성의 문자문화」, 『여성문학연구』 28, 한국여성문학학회; 박무영(2001), 「浩然齋 「白警篇」의 서술방식과 여성문학적 성격」, 『한국문학연구』 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한국문학연구소.
- 19) 박무영(1999), 「『여성적 말하기』와 여성한시의 전략」, 『여성문학연구』 2, 한국여성문학학회, pp. 20-25.

식인의 대표적인 반지성주의적 태도일 것이다.

여성문학의 특질을 ‘여성성’이란 동어반복적인 논리로 해명하려는 경향이 여성주의 문학이론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차이가 있다면 여성성의 함의를 부정적으로 보는가, 긍정적으로 보는가에 있다. 여성성의 긍정적 가치를 주장하는 여성주의 문학이론가들은 이를 통해 여성문학의 미래를 제시하는 하나의 지향점으로 삼기도 한다. 그러나 여성성을 부정적으로 보든, 긍정적으로 보든, 이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는 방식은 무엇보다 여성문학을 비역사화시킬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²⁰⁾ 또한 한문학은 상층 남성 전유물이란 인식이 근대 이후까지 오랫동안 존재했던 것 같다.

무가의 향유자 하층 여성과 한시를 쓰던 상층 여성의 공통점은 상층 여성도 당대에 ‘지식인’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한국구비문학의 대가 장덕순은 구비문학과 민중성, 즉 ‘반지식인성’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口碑文學은 民衆의 文學이다. 兩班으로 이루어진 少數의 支配層 또는 知識層을 제외한, 農民을 중심으로 하는 대다수의 民衆은 생활을 통해서 口碑文學을 창조하고 즐겨 왔다. (중략) 兩班 知識層의 記錄文學은 생활 자체와는 구별되는 知識이고 品位있는 教養이기에 文學한다는 의식과 함께 한가하게 창조되나, 民衆의 口碑文學은 생활과 구별되지 않고 文學한다는 의식 없이 창조된다. 그리고 口碑文學은 민중의 생활 경험·의식·가치관 등을 반영하며 支配層에 대한 비판과 항거를 나타낸다.²¹⁾

20) 여성성의 긍정적, 부정적 함의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이경하(2004), pp. 52-63.

21) 장덕순 외(1984), 『구비문학개설: 구비전승의 한국문학적 고찰』, 서울: 일조각, pp. 7-8.

고전여성문학은 반지식인적이란 점에서 위에서 얘기한 구비문학의 특징과 일맥상통한다. 여성도 양반일 수 있지만 “소수의 지배층 또는 지식층”이 아니란 점, “생활과 구별되지 않고 문학한다는 의식 없이 창조”한다는 점, 여성의 “생활 경험·의식·가치관 등을 반영”한다는 점, 그래서 무의식적으로라도 남성에게 대한 “비판과 항거를 나타낸다”는 점 등이 그렇다. ‘문학한다는 의식 없이 창조’한다는 것이 좀 걸릴 수 있는데, 하층과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지식층 남성이 문학을 비롯한 상징자본을 독점했으니 여성은 오히려 자기검열²²⁾을 통해 그런 욕구가 없는 척하는 편이었고 문학의 범위를 정통문학으로 좁게 볼 경우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

3. 여성문학 연구의 지성 중심주의

이 장에서는 여성문학을 연구하는 태도가 당대 지식인이라 해도 의도치 않게 반지성적일 수 있음, 심하게 말하면 연구의 지성 중심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전에 한국문학의 연구도 그런 경향이 있었음을 먼저 본다.

한국고전문학의 대표적인 연구 사례 중 ‘지성’을 강조한 경우로 임형택을 들 수 있다. 한문학 전공자이니 그럴 수 있다고 이해는 한다. 그래서 한문학사와 여성문학사의 제휴는 늘 골칫거리였다.²³⁾ 지식인은 곧 상층 남성이고 담론의 주체는 상층 남성 지식인이라든 무의식이 바로 문제였다. 임형택의 『문명의식과 실학: 한국 지성사를 읽다』의

22) 조선 시대 여성의 자기검열에 관해서는 이경하(2004), pp. 118-122.

23) 그런 고민을 줄곧 해온 대표적인 한문학 전공자가 박무영이다. 박무영(2016), 「21세기 한국한문학사 서술의 여러 문제—여성문학사의 입장에서—」, 『한국한문학연구』 64, 한국한문학회 참조.

한 대목을 보자.

이 책은 문명론의 시각에서 고전 읽기를 한 것이다. 대상이 된 고전은 한반도라는 시공간에서 저술과 독서의 행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책은 곧 한국의 역사에 대한 지성사적인 물음인 동시에 문명사적 반성의 의미를 띠고 있다고 하겠다. (중략) 문명 개념의 전도로 인해서 분분하게 제기된 문명담론의 주체는, 당연한 노릇이지만 지식인들이었다는 점을 중시했다. (중략) 문명론의 주체는 지식인이다. 지식인의 문명의식이 역사를 움직인 사상적 동력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²⁴⁾

그리고 그 지식인의 문명의식을 『열하일기』의 박지원, 정약용, 최한기 등에서 찾았다. 과거에 문명론의 주체가 지식인—주로 상층 남성이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성사는 본래 박지원, 정약용 같은 “탁월한 인물들과 엘리트에게만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런 비판이 학계 간 연구의 활성화로 현재는 현실에 들어맞지 않는다고 한다.²⁵⁾ 그러나 지성사가 ‘소수의 위대한 사상가’에게 쏠려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남아 있는 연구 자료가 상층 남성에게 절대적으로 치우쳐 있으니 그런 것이 당연했다. 그래서 초기에는 연구 분야를 가릴 것도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더욱 그랬다. 각 분야에서 여성주의가 본격화되기²⁶⁾ 전에는 거의 다 그랬다. 이 책에서 거론된 박지원 등은 오히려 반여성적이었다.²⁷⁾

24) 임형택(2009), 『문명의식과 실학: 한국 지성사를 읽다』, 파주: 돌베개, pp. 4-5.

25) 리처드 왓모어(2020), 이우창 역, 『지성사란 무엇인가』, 파주: 오월의봄, pp. 37-50.

26) 한국여성연구학회협의회 편(2013), 『여성주의 연구의 도전과 과제: 각 학문 영역에서 이뤄온 여성 연구의 과거·현재·미래』, 파주: 한울아카데미.

27) 허난설헌을 둘러싼 평가의 굴곡과 박지원, 홍대용 등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이경하(2004), pp. 122-127.

현대문학도 예외는 아니다. 현대문학 연구도 연구 대상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갖는 반지성주의적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예컨대 나혜석에 대한 문학사적 평가의 시대적 변화는 한국근대여성문학사 연구가 그간 이룩한 성과의 일면을 대변한다. 이른바 ‘여류문학 제1세대’에 관한 70년대의 평가와 그 중 대표적 인물인 나혜석에 대한 약 30년 후의 재평가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은 결코 작지 않다.

두 번째로, 우리가 비판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많은 풍문을 남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남성작가 혹은 기자들의 호기심의 작용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들에겐 별로 논의될 작품이 없는 것이다. 그들은 작품보다 활자화되는 이름이 문제였고, 여류라는 희소가치였다. 어떤 가치 있는 작품을 썼느냐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거나, 작품으로 썼다는 사실이 문제였던 것이다. 이름을 내고 이름을 내어 준다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다. 여기에서 문학의 가치를 운운하기까지는 불가능한 까닭이 잠겨있는 것이다.²⁸⁾

자전적 소설 「경희」(1918)가 발굴되어 한국 근대문학사에서 자기 위치를 정립하기 이전까지 문인으로서 나혜석은 「이혼고백장」으로 대표되었다. (중략) 그렇지만 「이혼고백장」 이전에도 나혜석은 이미 「모(母) 된 감상기(感想記)」·「부처간(夫妻間)의 문답」 같이 결혼한 여성으로서 자기경험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글들을 발표했으며, 사회적 비난을 받은 「이혼고백장」 이후에도 계속 의연하게 「신생활에 들면서」·「이성간의 우정」처럼 이혼한 여성의 입장을 드러내는 글들을 발표했다. (중략) 나혜석이 지속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글쓰기를 하게 된 추동력은 그러한 현실적인 필요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여성의 고유한 체험을 공적인 논의의 장으로 끌어내야 한다는 책무감이었다.²⁹⁾

28) 김윤식(1973), 『한국문학사논고』, 서울: 법문사, p. 239.

29) 이상경(2002), 『한국근대여성문학사론』, 서울: 소명출판, pp. 14-15.

앞 인용문은 현대문학의 거장인 김윤식의 평이다. 이른바 ‘여류문학 제1세대’의 문학사적 위상이 ‘여류라는 희소가치’ 정도로 평가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70년대까지 한국문학 연구의 한계였다고 할 것이다. ‘작품 없는 작가’로 알려졌던 나혜석 등을 말 그대로 ‘작가’로서 대접하고 문학사적 위상을 새롭게 평가할 수 있게 된 것은 새로운 자료의 발굴뿐만 아니라 기존 자료에 대한 재해석·재평가에 기인한다. 예전에는 나혜석의 특이한 삶의 여정과 그녀에 대한 풍문을 강화하는 근거에 불과했던 「이혼고백장」이나 「母 된 감상기」와 같은 글이 이제 “여성의 글쓰기는 여성의 체험을 공유하고 공론화하는 것”이라는 나혜석 여성문학론³⁰⁾의 실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종래 남성중심의 한국근대문학사에서 언급받지 못하던 ‘잡다한 글’이 20세기 초 여성문학이 이룩한 한 정점으로 역사 속에 복원되기에 이른 것이다.

기존 자료에 대한 해석의 새로움은 말할 것도 없지만, 새로운 자료의 발굴도 어떤 의미에서는 연구 관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근대문학사에서 최초의 여성작가소설이라 할 수 있는 나혜석의 처녀작 「부부」,³¹⁾ 최초의 근대 여성비평가 임순득³²⁾과 같은 새로운 작품과 작가의 발굴은 여성문학사를 양적으로 풍요하게 할 뿐 아니라, 여성작가들을 문학사 내에 확실히 자리매김하는 데 주요한 기반이 된다.³³⁾ 자료의 발굴이나 재평가는 문학사를 다시 쓰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

30) 이상경(2002), p. 14.

31) 서정자(1999), 「나혜석의 처녀작 「夫婦」에 대하여」, 『여성문학연구』 1, 한국여성문학학회.

32) 서정자(1990), 「최초의 여성문학 평론가 임순득론: 특히 그의 페미니즘 문학비평을 중심으로」, 『청파문학』 16, 숙대국문과; 이상경(2002), 「임순득, 혹은 여성문학사의 재구성」, 『계간 한국문학 평론』 10, 한국문학평론가협회.

33) 『여성문학연구』(한국여성문학학회 간행)는 창간호에서부터 ‘자료’편을 별도로 마련하여, 새로 발굴하였거나 학계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여성문학작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다. 여성문학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은 망각된 여성문학사의 면면을 새롭게 발굴하고 결국 문학사를 다시 쓰게 하는 추동력이 된다. 나혜석의 경우에서 보듯, 현대문학 연구도 연구 대상, 여기서는 곧 여성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갖는 반지성주의긴 마찬가지였다. 그것이 시대의 한계였다.

문학 연구에서 여성주의가 본격화된³⁴⁾ 후에도 여성의 글에서 지성을 중시하는 경향은 오래 지속되었다. 오랫동안 그렇지 않다고 여겼으니까, 과거 여성의 글에서 지성을 강조하는 것은 일견 당연했다. 영화 <더 포스트>에서 편집장의 아내가 스스로 용감하다 우쭐대는 남편에게 “너는 자질이 안 돼. 네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 무시하다 못해 없는 사람 취급당한 사람이 오랫동안 그런 상황에 처하다 보면 자기도 믿게 돼. 자기의 전 재산과 인생 같은 회사를 걸고 그런 결정을 했으니, 더 용감하지.”라고 말한 것처럼, 여성은 오랫동안 지성적이지 않다고 여겨졌다.

한국고전여성문학의 대표적인 연구 사례 중 ‘지성’을 강조한 경우를 들면 이해순의 『조선조 후기 여성 지성사』일 것이다.³⁵⁾ 제목에서부터 아예 지성을 강조했다. 사주당(師朱堂)처럼, 이 책에서 다룬 여성 대부분이 ‘지성적’인 여성들이다. 이를 이은 사주당 이씨(1739~1821)를 대상으로 한 심경호의 연구도 그렇다.³⁶⁾ 둘 다 이름 있는 한문학 전공자이다. 『조선조 후기 여성 지성사』의 한 대목을 보자.

지성을 지식 계층의 지적 재산, 사상이나 관념, 의식과 심리, 내지는 그 지향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할 때 본서에서 다룬 여성

34) 이경하(2014) 참조.

35) 이해순(2007), 『조선조 후기 여성 지성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36) 심경호(2009), 「사주당 이씨의 삶과 학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지성들은 비록 특정 ‘사상’으로 이름지을 만한 것을 보여주지는 않았으나 그들 모두 자신들이 당면해 있는 그 시대의 문제들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했던 이들이었다. 그들은 홀로 또는 형제들 어깨 너머로 고전을 수학하고 한문으로 글을 쓰거나 수많은 한문 전적들을 섭렵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뽑았던 조선 후기의 여성 엘리트 지식인이고, 그들의 언술이 시대정신, 사회 질서와 문제들에 대한 의식·관점·비판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 후기의 대표적 여성 지식인들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³⁷⁾

이 책에서 특히 제5장, 「18세기 말 19세기 초 이사주당의 태교의식에서 드러나는 여성 실학 정신」과 제6장, 「19세기 초 이빙허각의 『규합총서』에 나타난 여성 실학 사상」은 여성 지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지식인성과 상반되는 여성문학의 구술성을 강조한 사례도 있다. 중세 여성지성에 관한 논의의 전제를 재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는 글이었다. 그러나 지성을 강조한 것은 같다. 그 글의 한 대목을 보자.

지성의 구축과 발현에 있어서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은 얼마나 필수적인 것일까? 사물의 이치를 깨닫기 위한 방법이 공부이고 공부의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 책 읽기라고 할 때, 책 읽기에서 핵심은 책인가 읽기인가? 읽기가 핵심이라면 문자 해독력이 지성의 구축에 필수 요건이 되고, 계층과 성별에 따라 문자의 접근가능성이 달랐던 중세에는 특히 공동문어문자인 한문 해독력이 관건이다. 만약 책이 핵심이라면, 문자 해독력이 지성의 필수 요건이라고 할 수는 없을 듯하다. 책이 담고 있는 내용에 접근하는 방식은 읽기 외에 듣기가 있고, 한문을 언문으로 번역해서 읽기도 있기 때문이다. 거친 도식이긴 하지만, 적어도 중세 여성의 지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³⁸⁾

37) 이혜순(2007), p. 7.

38) 이경하(2010), 「중세의 여성 지성과 문자의 관계」, 『여성문학연구』 24, 한국여성

이 인용문은 지성과 책 읽기, 즉 한문 책 읽기의 관계를 문제 삼은 것이다. 책은 읽기도 하지만 듣기도 한다. 정식으로 한문을 배우지 않고 들어서 한문학적 소양을 쌓아 이른바 ‘지성적’인 언술을 늘어놓은 경우를 찾아 대서특필했으니, 지성을 강조한 것은 같다. 글이 아닌 말을 강조하자니 구술성이 더욱 문제가 된다. 그러나 구술성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선행 연구들에서도 의도치 않게 기록 문헌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³⁹⁾

4. 현대 여성주의와 반지성주의

이 장에서는 현대 여성주의가 대상이다. 여성주의에 대한 태도의 반지성주의는 21세기에서 예를 들자면, 메갈리아-위마드 현상에 대한 태도, 반응이 그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 현상을 간단히 말하면 “강남역 여성 혐오 살인과 넥슨의 성우 해고는 여성이라는 사실과 여성주의를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여성들이 생명과 직업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⁴⁰⁾이었는데, 2016년에 여성 혐오를 혐오로 맞대응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메갈리아(megalia)가 출현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라영의 책⁴¹⁾과 다른 논문들에 잘 정리되어 있다.

문학학회, pp. 33-34.

- 39) 상기 논문에서는 『열녀전』에서, 이 논문에서는 상층 남성이 남긴 여성 관련 글에서 여성의 구술성을 찾았다. 이경하(2019), 「17-8세기 사족 여성의 언어문자생활—한문·언문·구술의 상관관계」, 『여성문학연구』 48, 한국여성문학학회.
- 40) 김은주(2016), 「여성 혐오 이후의 여성주의의 주체화 전략: 혐오의 모방과 혼종적 주체성」, 『한국여성철학』 26, 한국여성철학회, p. 104.
- 41) 이라영(2019), 『타락한 저항: 지배하는 ‘피해자’들, 우리 안의 반지성주의』, 문학동네.

이라영의 책에서 말하는 반지성주의란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알기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상태’라고 했다. 이것은 정치적, 경제적, 가부장적 기득권 유지를 위해 알기를 거부하는 게 문제라고 했다. 그리고 각종 혐오 발언을 분석한다. 이 책에서는 블랙리스트,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메갈리아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혐오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대상을 모르면서 규정하려 든다고 했다. 오늘날 남성이 역차별을 받는대거나, ‘귀족노조’ 때문에 기업이 힘들대거나, ‘종북’이 나라를 망친다 등등.⁴²⁾ 메갈리아 현상을 다룬 이 책의 3장은 여성주의에 대한 현실의 다양한 혐오 사례와 그에 대한 비판이라 할 수 있다.⁴³⁾

한편 김선희는 “메갈-위마드에 대해 ‘여자 일베’라는 비난부터 여성 혐오에 대응하는 여성주의 전략이라는 평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각이 공존하는 것 또한 사실”이라 하고, 여성혐오에 대응하는 메갈-위마드의 혐오 미러링(mirroring) 전략이 여성의 목소리를 들리게 하는 충격요법이 되었다는 점에서 효과를 가져왔지만 그 한계는 분명하다고 했다.⁴⁴⁾ 혐오의 미러링은 혐오만큼이나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⁴⁵⁾ 또 다른 논문에 이런 말이 있다.

여성혐오(misogyny)는 여성에 대한 멸시이자, 여자를 성적 도구로만 생각하고 반응하는 것이다. 여성 혐오는 “성별이원제 젠더질서의 심층적 핵”으로, 남성과 동등한 주체로 여성을 인정하지 않는, 여성의 객체화, 타자화를 뜻한다. 다시 말해, 여성 혐오는 여성을 대상화하면서, 젠더 이원론을 공고히 하는 핵심 기제이다. 이렇게 본다면 가부장제 하의 성차별과 관련된 현상들은 ‘여성혐오’ 개념과 연

42) 이라영(2019), pp. 20-21.

43) 이라영(2019), pp. 124-168.

44) 김선희(2018.04), 「혐오담론에 대응하는 여성주의 전략의 재검토」, 『한국여성철학회 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한국여성철학회, p. 116.

45) 김선희(2018.04), p. 124.

결될 수 있다.⁴⁶⁾

현대의 보편화된 여성 혐오 현상은 여성주의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진다. 여성주의가 IS보다 위협하다 말하는 칼럼은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 ‘매갈’은 하나의 낙인이 되고 한동안 ‘진짜’ 페미니스트를 구별하는 척도가 되어 오늘날 한국의 페미니스트는 가짜라고 했다.⁴⁷⁾ 또한 여성주의에 대한 반감은 이른바 진보와 보수를 안 가린다.⁴⁸⁾ 이것이 여성주의에 대한 태도의 반지성주의의 대표일 것이다.

한국의 현실을 보자. 반지성주의라는 비판을 받는 사람이 반지성주의를 비판하고, 진보와 보수는 각각 상대편을 반지성주의라 비판하고, 페미니스트들과 그 비판자들도 각각 상대편을 반지성주의라 비판하고, 감성주의를 반지성주의로 간주하는 등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⁴⁹⁾

그래서 강준만은 진보와 보수 상관없이 “가치중립적 개념이자 특정 언행을 중심으로 적용하는 미시적 개념으로”⁵⁰⁾ 반지성주의 개념을 쓰자고 제안하고 그 3대 요소로 신앙적 확신, 성찰 불능, 적대적 표현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적대적 표현은 위에서 이야기한 여성 혐오 및 성찰 불능과 직결된다.

한편 초창기 여성주의자도 반지성주의 태도를 보인다. 여기서 반지성주의는 앞과 다르다. 여성 혐오와 정반대인, 여성 공감이다. 그래서

46) 김은주(2016), p. 105.

47) 이라영(2019), pp. 125-129.

48) 이라영(2019), p. 133.; 강준만(2019), pp. 29-30.

49) 강준만(2019), p. 29.

50) 강준만(2019), p. 35.

감상주의와 잘 연결된다. 지성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중간 중간 연구 대상이 여성이란 이유로 감상에 잘 빠진다.

초창기 여성주의가 빠지기 쉬웠던 ‘감상주의’의 국내외 사례가 많다. 여기서는 문학 연구만 보자. 초기 여성문학 연구에서 발견되는 공통점 가운데 하나로 여성문학의 과거 유산에 대한 연구자의 감상적 태도를 지적할 수 있다. 구체적인 서술에서 드러나는 감정의 과잉이나 서술대상에 대한 감상적인 찬미는 각국의 초기 여성문학사 서술에서 종종 발견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점에서 두 명의 19세기 여성, 조르주 상드와 엘리자벳 베렛 브라우닝이 부각된다. 그들은 얼마나 경이로운 존재인가. 그들의 삶에서는 세계를 그들에게 끌어당기는 어떤 저항하기 어려운 힘, 자력이 뿜어져 나온다.—그리고 그들의 문학에서, 여자의 인생을 장식하고 채우는 모든 종류의 선행과 자비가 흘러넘친다. 이는 그들의 삶에 다른 여성들을 괴롭혔던 것과 같은 시련이 없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다.—거의 그럴 리는 없다. 그들은 마법 지팡이를 흔들어서 고난들을 자원으로 만들었던 것이다.—이것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 매력? 힘? 자기중심성? 에너지? 자신감? 자존심? 천재성? 아니면 단순히 운이라고 해야 할까?⁵¹⁾

모어즈가 19세기 여성문학인의 전형적 사례로서 프랑스 소설가 상

51) “Two nineteenth-century women stand out in this respect, George Sand and Elizabeth Barrett Browning; what positively miraculous beings they were. A magnetism emanates from their life stories, some compelling power which drew the world to them—and all the goods and blessings of the kind that facilitate and ornament the woman’s life in letters. It was not that their lives were without the difficulties that plague other women—hardly; but they made those difficulties into resources with a wave of the magic wand of their—what shall we call it: charm? power? egotism? energy? confidence? pride? genius? or just plain luck?”(Ellen Moers, *Literary Women: The Great Writer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5 (reprint), p. 5.)

드(George Sand)와 영국 시인 브라우닝(Elizabeth Barrett Browning)을 거론한 대목인데, 이 또한 그들에 대한 묘사가 찬사와 걱정으로 가득하다. 과거 여성문학인들의 ‘경이로움’을 설명할 적당한 표현을 찾지 못해 망설이고 있다. “그들은 얼마나 경이로운 존재인가!” 하는 식의 감탄문 사용은 서술대상을 신비화하고 우상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때 여성시인의 ‘경이로움’은 모어즈에게 지적 판단이나 해석의 차원을 넘어서 있는 듯 보인다. 이처럼 여성문학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는 서술자가 서술대상에 대해 찬양조의 감상적 평가를 숨김없이 드러내는 경우가 흔하다.

여성문학인의 위대함에 대한 찬양이 두드러지는 것과 비례해서, 서술자는 과거의 여성들이 처했던 문학 환경의 열악함을 피상적으로 과장하고 악조건 속에서 문학 활동을 했던 여성작가들의 처지를 탄식조로 동정한다. 초기의 여성문학사 서술에서는 이처럼 ‘가련한’ 과거 여성문학인들에 대한 연민을 숨기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김용숙이 허난설헌에 대해 서술하는 한 대목을 보자.

다섯 살 때부터 作詩했던 文才에 탁월한 그는 안온히 고등식모의 신분에 만족해 있을 수가 없었다. 분류와 같이 넘쳐흐르는 창작에의 의욕은 그를 용납해 주지 않는 현실을 부정하고 원망했다. (중략) 그는 확실히 약한 여성이었다. (중략) 그는 조물주부터 원망했다. 인생으로 태어나서 사회적인 제약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 해보는 원한—이것만은 끝끝내 아무래도 단념이 안 되었다. 그에게 만일 종교가 있었던들 그는 무난히 구원받았을지 모른다.⁵²⁾

이처럼 초기 여성문학 연구에서 찬양이든 탄식이든 감상적인 표현이 곳곳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겠

52) 김용숙(1990), 『조선조여류문학연구』, 서울: 혜진서관, p. 405.

지만, 이는 연구자의 성별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과거 여성들이 문학 활동을 비롯한 삶의 제 영역에서 적어도 동시대 남성들에 비해 더 큰 제약 속에 놓여 있었다는 인식이 ‘여성’ 문학 연구자들의 감상을 자극하는 측면이 없지 않았을 것 같다. 문학 연구는 ‘지성적’ 작업으로 수행되지만, 과거 여성문학인들의 삶과 문학이 ‘여성’ 문학 연구자들에게는 단지 ‘지성적’ 탐구의 대상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

‘여성’ 문학 연구자가 과거 여성문학인들에 대해 시대를 초월한 동질감을 느끼는 듯 보이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김용숙은 조선시대 여성문학인들에게 “300년 이상 時空을 넘어 뒀던 인간적 공감을 직감”하며 “그들의 기쁨을, 눈물을, 한숨을, 또 체온을 피부로써” 느낀다고 했다. 조선시대 여성문학인과 작품을 통해 구현되는 “근면과 인종, 겸양과 희생으로 일관한 이조여인들”의 삶이 자신의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이어져 왔고 “그 희생 위에” 자기가 있다고 했다. 심지어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고 토로한다.⁵³⁾

이상에서 초기 여성문학 연구에서 발견되는 연구자의 감상적 태도를 길게 살폈다. 그러나 여성과 같은 소수집단은 오랫동안 주변화되었던 바로 그 속성으로 인해 스스로를 비판·수정하기에 보다 용이한 위치에 있다.⁵⁴⁾ “다수자의 지배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와 활동을 생성하는” “권력과 대결하는 변이의 힘”이야말로 소수성의 본질이다.⁵⁵⁾ 여성주의 이론이 자체 비판과 수정의 과정을 거쳐 초기의 경직성에서 탈피하고 있음이 이를 입증한다. 앞서 살폈듯이, 메갈리아 현상을 둘러싼 여성주의의 반성도 그중의 하나다.

53) 김용숙(1975), 『이조의 여류문학』, 서울: 한국일보사, pp. 2-3.

54) Linda Hutcheon, “Rethinking the National Model”, *Rethinking Literary History: A Dialogue on Theory* (ed. by Linda Hutcheon and Mario J. Valdes),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p. 13.

55) 이진경(1997), 「근대적 주체와 정체성」, 『경제와 사회』 35, 비판사회학회, p. 17.

이 장에서는 현대 여성주의가 대상이었다. 메갈리아-위마드 현상에 대한 태도의 반지성주의는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았다. 반대로 초기 여성주의는 지식인으로서 너무 감상적으로 연구 대상, 즉 과거 여성에 동화되어 문제가 되었다. 문제는 균형이었다.

5. 맺음말

본고에서는 여성문학과 반지성주의의 관계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목표로 하였다. 본고에서는 ‘반지성주의’를 ‘반지식인’ 또는 ‘타자에 대한 적대감’의 뜻으로 썼다. 그리고 긴 역사적 개괄이 복잡하고 다양한 여성문학과 반지성주의의 관계를 드러내는 데 더 적합하다 여겼다. 여성문학과 반지성주의 관계는 단일하지 않았다. 무가처럼 여성문학이 비지식인의 문학으로 반지성적일 수도 있고(모든 무가가 그렇지는 않음), 조선의 상층 문인들이나 21세기의 이른바 ‘진보’처럼 여성문학이나 여성주의를 다루는 태도가 반지성적일 수도 있다.

본론에서 살핀바, 예전에는 여성이 지식인이 아니란 이유로 여성문학이 외면당했다. 구비문학이 그랬던 것처럼. 또한 여성문학을 대하는 태도는 당대 지식인이라 해도 반지성적일 수 있었다. 상층 남성은 대개 당대 지식인이었지만 여성작가문학을 대하는 태도는 반지성적이었다. 조선뿐만 아니라 현대에서도 한동안 여성작가문학에 대한 일종의 편견이 있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지분기’라는 말도 있었고, 근대 이후 문학사에서도 여성작가문학은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했다. 한편에서는 초기 여성주의의 과도함이 고전여성작가에 대해 지나친 감상에 빠지게도 했다. 현재에는 ‘메갈리아’로 낙인찍힌 여성주의가 지나치다고, 남성을 적대시한다고, 여기저기서 욕을 먹는다. 그것은 오해라고 항변해도 소용이 없다. 그것이 대중의 시선이었다. 그 시선을

신경 써야 하는, 일부의 ‘진보’도 마찬가지로여서 이른바 ‘급진적인’ 여성주의를 멀리했다.

당대 지식인의 ‘상식’은 다수결을 중시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트럼프의 당선도, 브렉시트도 직접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따랐을 뿐이다. 정가에서는 특하면 포퓰리즘을 말하는데, 무엇이 진짜 포퓰리즘인지 알 수가 없다.⁵⁶⁾ 유행이든 뭐든 ‘잘 나간다는’ 여성주의를 따르는 것이 포퓰리즘인지, 이른바 ‘급진적인’ 여성주의를 따르지 않는 것이 포퓰리즘인지 알 수가 없다.

지식인의 ‘상식’도, 민중의 생각도, 여론 형성의 방식도⁵⁷⁾ 시대에 따라 변한다. 여성과 여성작가문학, 여성주의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예전에는 상식, 통념이었던 것이 현재는 더 이상 아니다. 과학적 상식도, 사회적 상식도 변한다. 시간이 지나면 더 좋아질 거라고 손 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될까? 손 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강 건너 불구경만 하면, 최소한 욕을 먹거나 생계를 위협받지는 않을 것이다. ‘메갈리아’를 표방한 여성주의자들처럼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다.

새로 쓰는 지성사가 이제 어느 시대를 다루건 이른바 상층 남성 ‘지식인’의 글로만 채워지지 않음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여성이나

56) 한국에서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또는 ‘중우정치’라는 도식이 있는데, 이것은 한국 언론의 잘못된 이해방식의 답습이고, 애당초 번역도 틀렸고, 개념이 성립된 역사적 맥락과도 맞지 않는다고 홍윤기는 강변한다. 학계에서조차 그 관행을 따르고 있다고 비판하며, 한국의 ‘포퓰리즘’ 담론이 중남미 등 역사적 ‘포퓰리즘’의 각종 특성들과 그 어떤 상관성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홍윤기(2006), 「한국 “포퓰리즘” 담론의 철학적 검토」, 『시민사회와 NGO』 4-1, 한양대학교 제3센터연구소 참고). 한편 안병진은 포퓰리즘이란 ‘기성 엘리트층 대 평범한 시민들의 적대감이라는 이원적 대립구도를 활용한 정치 담론 전략’을 말한다고 한다[안병진(2016), p. 49].

57) 21세기는 뉴 미디어 시대에 예전의 방식이 잘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전의 저명한 지성인이 정계에서도 그다지 큰 힘을 갖지 못한다[안병진(2016), p. 60].

하층을 포괄하면 다 해결되는가? 한국문학사에서 보듯이 그것이 그렇게 ‘끼워 넣기’를 한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다. 관점이 문제라고 한다. 결국 따로 쓸 수밖에 없을까? ‘위대한 인물’을 중시한 기존의 지성사와 반지성사의 관계도 그럴까? 반지성주의는 지성주의에 반성을 촉구하는 데 만족해야 할까?

참고문헌

【논 저】

- 강준만(2019), 「왜 대중은 반지성주의에 매료되는가?」, 『정치정보연구』 22(1), 한국정치정보학회.
- 김선희(2018.04), 「혐오담론에 대응하는 여성주의 전략의 재검토」, 『한국여성철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한국여성철학회.
- 김용숙(1990), 『조선조여류문학연구』, 서울: 혜진서관.
- _____(1975), 『이조의 여류문학』, 서울: 한국일보사.
- 김윤식(1973), 『한국문학사논고』, 서울: 법문사.
- 김은주(2016), 「여성 혐오 이후의 여성주의의 주체화 전략: 혐오의 모방과 혼종적 주체성」, 『한국여성철학』 26, 한국여성철학회.
- 남상욱(2019), 「현대일본의 ‘반지성주의’ 담론 분석」, 『일본학보』 119, 한국일본학회.
- 로렐 켈달(2016), 김성례·김동규 역, 『무당, 여성, 신령들: 1970년대 한국 여성의 의례적 실천』, 서울: 일조각.
- 리처드 왓모어(2020), 이우창 역, 『지성사란 무엇인가』, 파주: 오월의봄.
- 박무영(2016), 「21세기 한국한문학사 서술의 여러 문제—여성문학사의 입장에서—」, 『한국한문학연구』 64, 한국한문학회.
- _____(2001), 「浩然齋 「白警篇」의 서술방식과 여성문학적 성격」, 『한국문학연구』 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한국문학연구소.
- _____(1999), 「‘여성적 말하기’와 여성한시의 전략」, 『여성문학연구』 2, 한국여성문학학회.
- 서정자(1999), 「나혜석의 처녀작 「夫婦」에 대하여」, 『여성문학연구』 1, 한국여성문학학회.
- _____(1990), 「최초의 여성문학 평론가 임순득론: 특히 그의 페미니즘 문학 비평을 중심으로」, 『청파문학』 16, 숙대국문과.
- 심경호(2009), 「사주당 이씨의 삶과 학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 안병진(2016), 「조지 윌리스의 부활—트럼프 현상의 연속성과 새로움」, 『여

- 사비평』 117, 역사문제연구소.
- 우치다 다쓰루 편(2016), 김경원 역, 『반지성주의를 말하다: 우리는 왜 퇴행하고 있는가』, 고양: 이마.
- 이경하(2019), 「17-8세기 사족 여성의 언어문자생활—한문·언문·구술의 상관관계」, 『여성문학연구』 48, 한국여성문학학회.
- _____(2019), 『바리데기』, 돌베개.
- _____(2014),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의 정체성과 지구화 시대의 과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9, 한국고전여성문학회.
- _____(2010), 「중세의 여성 지성과 문자의 관계」, 『여성문학연구』 24, 한국여성문학학회.
- _____(2005), 「17세기 士族 여성의 한문생활, 그 보편과 특수」, 『국어국문학』 140, 국어국문학회.
- _____(2004), 「여성문학사 서술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라영(2019) 지음, 『타락한 저항: 지배하는 ‘피해자’들, 우리 안의 반지성주의』, 문학동네.
- 이상경(2002), 『한국근대여성문학사론』, 서울: 소명출판.
- 이지영(2012), 「조선시대 규훈서(閨訓書)와 여성의 문자문화」, 『여성문학연구』 28, 한국여성문학학회.
- 이진경(1997), 「근대적 주체와 정체성」, 『경제와 사회』 35, 비판사회학회.
- 이혜순(2007), 『조선조 후기 여성 지성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임형택(2009), 『문명의식과 실학: 한국 지성사를 읽다』, 파주: 돌베개.
- _____(1988), 「17세기 규방소설의 성립과 《창선감의록》」, 『동방학지』 57,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 장덕순 외(1984), 『구비문학개설: 구비전승의 한국문학적 고찰』, 서울: 일조각.
- 정병설(2001), 「조선후기 여성소설과 남성소설의 비교 연구—<옥원재합기연>과 <옥린몽>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07, 한국어교육학회(구: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 최길성(1982), 「무속에 있어서 「집」과 「여성」」, 『한국무속의 종합적 고찰』 (홍일식 외),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한국여성연구학회협의회 편(2013), 『여성주의 연구의 도전과 과제: 각 학문

영역에서 이뤄온 여성 연구의 과거·현재·미래』, 파주: 한울아카데미.

홍윤기(2006), 「한국 “포퓰리즘” 담론의 철학적 검토」, 『시민사회와 NGO』 4-1,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Hutcheon, Linda (2002), “Rethinking the National Model”, *Rethinking Literary History: A Dialogue on Theory* (ed. by Linda Hutcheon and Mario J. Valdes),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Moers, Ellen (1985(reprint)), *Literary Women: The Great Writer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원고 접수일: 2021년 7월 13일

심사 완료일: 2021년 7월 28일

게재 확정일: 2021년 8월 4일

ABSTRACT

Historical Review of Rrelationship of
Anti-Intellectualism and Korean Women's Literature

Lee, Kyungha*

This paper presents a historical review of anti-intellectualism present in women's literature. Here, the concept of 'anti-intellectualism', which has many meanings, was understood as being anti-intellectual, and 'women's literature' was defined as woman writer's literature or feminist writing, according to the context.

The main point is that the attitude toward women's literature could be influenced by anti-intellectualism, even if they were of the intellectuals of the time. For example, in the Joseon Dynasty, there was the term '*jibungi*', and even from the modern era, women's writers have not been treated properly in literary history. On the other hand, the excessiveness of early feminism caused the classical female writer to fall into excessive 'appreciation'. In the present, feminism, branded as 'Megalia', is excessive, and it is cursed everywhere. It was the general public's gaze. This paper examined the fact that due to this situation, even those of a progressive attitude kept away from 'radical' feminism.

* HK Professor, Institute of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